

## 한국어와 러시아어 신체 관련 관용어의 비교 – '머리'를 중심으로

누르갈리에바 아이굴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Название статьи:**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во фразеосочетаниях компонента "голова" корейского и русского языков.

**Автор:** Нургалиева А.М., КазУМОиМЯ им. Абылай хана,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

**Резюме:** Корейский и русский языки относятся генетически и типологически к разным языковым семьям и типам. Вследствие этого они имеют существенные различия.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мы рассмотрели особенности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х единиц корейского и русского языков на основе семант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Условно мы сгруппировали их на 4 блока:

- 1)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с одинаковым лексическим составом и сходно семантикой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х выражений.
- 2)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с разным лексическим составом, но с сходной семантикой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х единиц.
- 3)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с одинаковым лексическим составом, но с различной семантикой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х единиц.
- 4) Исконные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единицы в двух языках:

- 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 б) русский язык

Компонент "голова" в обеих языках чаще всего выражает способность мыслить, чувствовать, уметь рассуждать. Во фразеосочетаниях компонент "голова" содержит значения: сознание, глупость, кол-во людей, а также способности к чему-л., память, высокомерие и т.д.

Как и в корейском, так и в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голова" выражает одно и то же значение во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х единицах. схожую семантику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х единиц.

В данной работе мы подвергли исследованию только соматические фразеосочетания с компонентом "голова", а в дальнейшем предполагаем исследовать фразеосочетания с другими соматическими лексемами корейского и русского языков.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русский язык, фразеосочетания, фразеологизмы, идиомы, части тела, голова.

**주제어:** 한국어, 러시아어, 관용어, 신체, 머리

## 1. 서론

최근 한국어 수업에서 관용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관용어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관용어를 비교한 논문은 몇 편 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표현들 중에는 외국어 학습자들의 경우에 이해하기 어렵고 잘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관용어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관용어는 그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에 있어서도 역시 관용어를 간과할 수 없다.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세계화라는 시대적 요청의 첫 과제로,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새로운 언어를 배움으로써 단순히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문화가 배어 있는 관용어와 같은 특이한 부분까지 꼭 배워야 한다. 그래야 그 나라의 살아 있는 언어를 습득하고, 나아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친족어가 아니어서 언어의 표현법도 다르다. 그러나 언어가 인간의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까닭에 공통점 또한 없을 수 없다.

러시아어를 학습하는 한국인들에게, 또한 한국어를 학습하는 러시아인들에게 양국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두 언어의 관용어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본고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 관용어를 대조하고 두 언어 간에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한다. 연구대상이 되는 관용어의 목록을 수집하고 관련 사건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검토할 것이다.

자료는 이희승(2006) 국어사전, 박영준/최경봉(1996)의 ‘관용어사전’, Tihonov(2007), Melerovich & Mokiyenko(2005), Abrazheichik (2007) 등을 근간으로, 신체 부위별 용례를 처리하였다.

## 2. 신체 관련 관용어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의 몸이다. 언어가 생기기 전부터 인간은 신체를 이용하여 의사전달을 하고 자기 생각을 남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었다. 신체 관련 관용어는 옛날부터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이뤄 왔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표현방법이 될 수 있었다.

우선 본 연구를 위해 한국어 및 러시아어의 신체어휘 관용어의 용례를 모아 봤는데 한국어는 총 1,405 개이고 러시아어는 총 848 개이다.<sup>1</sup>

신체	외부						내부				
	한국어	러시아어	신체어	한국어	러시아어	신체	한국어	러시아어	신체	한국어	러시아어
눈	229	99	손	127	61	발	68	81	간	43	2
입	103	31	가슴	93	6	다리	27		뼈	26	16
귀	89	64	몸	45	5	엉덩이	6		심장	16	49
머리	81	124	어깨	25	21	무릎	6	2	간장	13	
얼굴/뺨	64	35	등	25	14	궁둥이	4		비위	10	8
코	58	53	살	24	2	종아리	2		오장	7	3
목	55	39	배	21	4				창자	5	3
혀	23	42	허리	15	8				쓸개	3	
고개	20		젖	5	5				염통	3	
덜미	11	2	팔	4					갈비	2	3
이	10	29	신체	1					허파	2	
볼	5		털	1	9				뇌	1	9
턱	5										
이마	4	11									
입술	3	6									
뺨	2	2									
이목	2										
안면	1										
계	775	537		386	135		113	83		131	93

비교의 대상이 되는 두 언어에서 신체어휘 관용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들은 <눈>, <손>, <머리>이다. 이러한 사정은 아마도 언어 내적인 이유에 의한 것은 아닐 것이다. (관용어의 구성요소인) 위의 신체 어휘들은 인간이 인식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각, 논리, 실천 등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시대, 나라 등을 막론하고 활발히 사용되어 온 것이다. 보통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와 큰 정도와 작은 정도의 개별적 비유적인 의미를 느끼고, 관용어 의미에서 느낄 수 있는 개별적인 관용어 단위이다. 그러나 말없이 그들은 직접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충분히, 그리고 명확하고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은유, 관용어, 속담 등에서 신체어휘를 확대된 의미로 사용한다. 사

<sup>1</sup> 누르갈리에바 아이굴(2008), <한국어와 러시아어 관용구의 비교연구, 대구대 석사 학위논문.

람들은 신체 어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과 감정을 묘사한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의 몸은 제일 가까운 것이라서 다른 것을 지시할 때에도 이들을 끌어들이어 표현하려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 관용어 ‘자기 다섯 손가락을 아는 것처럼’(‘знать как свои пять пальцев’)는 ‘매우 잘 알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인체의 기관(器官)은 여러 부위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를 받는 기관은 눈, 귀와 코이다. 배, 어깨와 발은 이것에 참여하지 않는다. 정보를 전달하는 기관은 혀이다. 움직임과 제스처를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관이다. 이것에 다른 기관은 참여하지 않는다. 모든 신체의 부분은 인간 활동에 필요하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은 ‘너에게는 손이 없어?’(‘у тебя что, рук нет’), ‘너는 발이 없어?’(‘у тебя ног нет?’), 한국어에서 ‘눈이 없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등이다. 사람은 어떤 부탁을 들어주지 않거나, 어디론가 가지 않을 때 이 표현은 반어(ironic)로 사용된다.

제스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의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사전달 제스처’(communicative gesture)와 ‘징후적인 제스처’(symptomatic gesture)가 그것이다. ‘의사전달 제스처’는 수신인에게 정보를 전하는 제스처와 관련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대화의 제스처이다. 예를 들어 ‘주먹으로 위협하다’, ‘손짓으로 부르다’, ‘혀를 내밀어 보이다’, ‘손가락질해 보이다’, ‘눈짓하다’, ‘절하다, 경례하다’, ‘사원에 손가락으로 도라’ 등이다. 그리고 ‘징후적인 제스처’는 그들을 말하는 사람의 감정의 상태에 대해 확인한다. 예를 들어 ‘경탄해서 입을 열다’, ‘입술을 꼭 다물다’, ‘입술을 깨물다’,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치다’ 등이다. 징후적인 제스처는 생리적인 행동과 의사전달 제스처는 사이에 위치를 점유한다. 행동과 같이 예전부터 각각의 정서를 나타내는 생리적 현상과 가까워진다.

같은 제스처라도 다른 문화에서는 완전하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두 언어의 관용어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은 드러내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 3. 머리/голова

한국어에서 머리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면 “머리: 눈, 코, 입, 귀,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의 목 위의 부분,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 생각이나 기억, 어떤 물체의, 윗부분, 앞과 뒤가 있는 물건의 앞부분,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 또한 일의 시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용어에서 머리에 대한 의미를 분석해보면 머리는 사람의 사고력, 능력과 양식을 조종하고 사람의 의지, 시작 또한 관심, 감동, 분노, 씩스러움, 태도, 죽음, 생사 등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머리’에 관한 한국어(81 개) 및 러시아어(124 개)의 관용어를 모아, 이것을 표현 방법 및 의미론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단어구성과 관용의미가 같은 관용어

한국어	러시아어
머리가 무겁다	тяжёлая голова
머리가 가볍다	лёгкая голова
머리가 돌다	голова кружится
머리를 숙이다	вешать голову
머리가 아프다	голову болит

한국어에서 ‘머리가 무겁다’ 표현은 ‘기분이 좋지 않거나 골이 멍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머리가 가볍다’는 ‘상쾌하여 마음이나 기분이 거뜨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머리가 돌다’는 ‘임기응변으로 생각이 잘 떠오른다. 1) 정신이 이상하게 되다. 2) 생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머리를 숙이다’ 표현은 ‘1) 머리를 굽히다. 2) 수긍하거나 경의를 표하다. 3) 사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머리가 아프다’라는 말은 머리가 육체적으로 아프다는 의미 이외에 어떤 일로 인해 걱정하고 근심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러시아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2) 단어구성은 다르나 관용의미가 같은 관용어

한국어	러시아어
머리가 좋다	머리가 맑다 (светлая голова) 머리가 맑다 (ясная голова)
머리가 나쁘다	마보 같은 머리 (дурья голова) 뚫린 머리 (дырявая голова) 진나무의 머리 (еловая голова)
머리를 들다	머리에 잡아 두다 (держат в голове)
머리를 쓰다	머리로 생각하다 (думать головой)
머리가 썩다	뇌가 썩다 (мозги гниют)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 ‘머리를 쓰다’, ‘머리가 썩다’라는 말은 사람의 능력과 기분, 마음, 정신적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다. 1) 놀려 있었거나 숨겨 온 생각, 의심 따위가 겉으로 드러난다. 2) 차차로 세력을 얻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다. 대두(擡頭)하다’는 의미를 한국어에서

‘머리를 들다’ 표현으로 나타나고 러시아어에서 ‘머리에 잡아 두다’ (держать в голове)라고 한다.

3) 단어구성은 같으나 관용의미가 다른 관용어

한국어	러시아어
머리가 크다	большая голова

한국어에서 ‘머리가 크다’라는 말은 ‘성인이 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어에서 ‘머리가 크다’라는 말은 ‘똑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4) 두 언어에 고유한 관용어

a) 한국어

한국어	뜻
머리를 얹다	결혼하다
머리를 올리다	결혼하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부부가 의좋게 오래 살다

‘머리를 얹다’, ‘머리를 얹히다’, ‘머리를 올리다’라는 관용어에서는 여자가 결혼한 표시로 여자의 긴 머리를 두 갈래로 땀아 엇바꾸어 양쪽 귀 뒤로 돌려서 이마 위쪽에 한데 틀어 엮는다는 말인데 진정한 의미는 결혼한다, 아내로 삼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각 나라의 풍습과 관련된 표현을 찾아 볼 수 있으며 한국은 결혼 전의 여자는 머리를 길게 땀는 풍습이 있어 결혼할 때 올린다면 카자흐스탄은 반대로 결혼 전에는 두 갈래로 땀아서 결혼할 때 하나로 묶으며 머리에 머리쓰개를 쓰고 ‘부인 머리’라는 장식을 하는 풍습이 옛날에 있었다.

b) 러시아어

러시아어	뜻
머리가 어깨에 붙어있다 голова на плечах	이해력이 좋다
머릿속에서 나가다 выходить, вылетать из головы	잊어버리다
아픈 머리에서 건강한 머리에 내려가다 свалить с больной головы на здоровую.	죄 또는 책임을 전가하다
머릿속에 오지 않다 в голову не идет	그로서는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다
머릿속에 때려 넣다	가르쳐 주입시키다, 깨닫게

вбить в голову	하다
머리를 깨다 ломать голову	생각해 내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고심하다
머리를 잃다 потерять голову	이성을 잃다, 기분이 전도하다, 눈이 마주치다
머리를 부수면서 сломя голову	매우 급하게, 서슴지 않고
머리에 떨어지는 눈처럼 как снег на голову	뜻밖에
모래 속에 머리를 묻다 зарыть голову в песок	세상을 떠나서 살다, 파묻히다
머리로 보증하다 поплатиться(ручаться) головой	생명을 걸고 보증하다
머리를 비누칠하다 намылить голову	몹시 꾸짖다
그의 머리 속에는 바람뿐이다 у него ветер в голове	그는 경박한 사나이다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목이다 муж голова, а жена шея	아내가 마음대로 하다는 뜻이다
한 머리 좋지만 두 머리가 더 낫다 одна голова хороша, но 2 лучше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이 하면 더 좋다는 말이다

집중되는 기능의 가치와 의지(意志)를 그런 관용어에서 반영한다. 예로 '머리를 잃지 않다 (침착하다)' ('не терять головы'), '머리가 어깨에 붙어있다 ('голова на плечах'); '모래 속에 머리를 묻다' ('зарыть голову в песок') 등. 흔히 '머리'는 '생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생활의 중요한 기관(器官)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생면을 걸고 보증하다' ('Поплатиться (ручаться) головой'). 또는 러시아어의 '한 사람의 머리도 좋지만 두 사람의 머리가 모이면 더 낫다'는 말이 한국 속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과 비슷하다.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머리'와 관련된 관용어를 비교해 보면, 두 언어의 관용어의 단어구성과 구조가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결론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친족어가 아니어서 언어와 문화는 다르면서 언어의 표현법도 다르다. 그러나 표현법이 다르더라도 그 언어가 인간의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신체 관련 관용어를 의미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4 가지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았다.

- 1) 단어 구성과 관용의미가 같은 관용어
- 2) 단어구성은 다르나 관용의미가 같은 관용어
- 3) 단어구성은 같으나 관용의미가 다른 관용어
- 4) 두 언어에 고유한 관용어:
  - a) 한국어
  - b) 러시아어

[머리]는 주로 양국어에서 사고력, 감동, 판단, 의식, 어리석음, 사람 수를 나타내며 이 이외에 능력, 기억, 거만 등을 표현한다. 머리에 경우에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비슷하게 행위와 태도를 나타내는 관용어가 가장 많았다.

본고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신체어휘 관용어어 중 머리로 범위를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관용어 비교 연구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비교 연구, 더 나아가서는 두 언어의 근간이 되는 문화의 비교 연구까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여 이 글을 맺는다.

### 참고문헌

#### <사전>

1.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 국어대사전>, 두산동아.
2. 김학수(1987), <러한사전(Русско-корейский словарь)>, 일념.
3. 박영준·최경봉(1997), <관용어 사전>, 태학사.
4. 신기철·신용철(1975),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5. 이희승(2006), <옛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6. 한국러시아문학회 편(2002), <한러사전 Корейс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ь>, 러시아문학회.
7. Abrazheichik, A.(2007), 2000 русскихи 2000 английскихидиом, фразеологизмовиустойчивыхсловосочетаний, Минск.
8. MelerovichA.M.&MokiyankoV.M. (2005), Фразеологизмыврусскойречи, Минск.
9. OzhegovS.I.&ShvedovaN. (1982),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10. TihonovA.N. (2007),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11. ZhukovA.V. (2003), Лексико-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Ульяновск.

#### <논저>

1. 김향숙(1996), <인체 '손'의 속어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 김향숙(2003), <한국어감정표현관용어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3. 누르갈리에바 아이굴(2008), <한국어와 러시아어 관용구의 비교 연구,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4. 문종선(1994), <국어 관용어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5. 박명아(2000), <국어 신체어 관련 관용표현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6. Arkhangelskiy V.L.(1964), Устойчивый фразы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Изд-во Ростовского ун-та.
7. Larin V.A.(1956), Очерки по фразеологии. Уч.зап. ЛГУ. Сер.филол.наук, Вып.24
8. Ozhegov S.I.(1956), О структуре фразеологии (в связи с проектом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ого словар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Лексикограф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Вып II, вМ.
9. Rheoktistova A.V.(2000), Особенности формирования и возникновения русских идиом.
10. Shanskiy N.M.(1985), Фразеолог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Высшая школа.
11. Zhukov V.P.(1978), Семантика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х оборотов, М., Просвещение